

전남 마을공동체 연대·화합 의지 다졌다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황

‘마을애 빠지다, 전남을 잇다!’ 슬로건
700여명 참석 재능경연·전시체험 다채
12개 마을공동체, 전남지사 표창 영예

전남 마을공동체 화합의 장인 ‘2025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 시·군마을센터협의회장, 마을활동가,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마을 애 빠지다. 전남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념식, 어울림한마당, 전시·체험관 운영 등 22개 시·군 마을공동체의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어울림한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능경연 대회가 열려 노래, 전통악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세대가 함께 참여한 공연은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화합 의지를 상징했다.

전시·체험관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 소개, 마을 자원 활용 체험, 특산물 시식·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마을이야기관’



마을공동체 한마당이 지난달 31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마을공동체 활동 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애리 기자

에서는 22개 시·군 대표마을 이야기를 전시해 각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렸다.

마을공동체 한마당행사에서는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지역 12개 공동체와 6개 시·군센터가 전남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돌봄 분야 최우수상은 행복밥상 운영으로 주민 돌봄에 앞장선 장흥행원1구 마을공동체가 선정됐다.

장흥행원1구 마을공동체는 고령화 된 마을에

서 서로 돌보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온 주민이 한 데 모여 식사하는 행복밥상 운영을 비롯해, 반찬 배달 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 운동 지도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돌봄 분야 우수상은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 112 자전거 봉사대 나눔공동체와 공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집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실질적 도움과 정서적 돌봄을 실천한 화순동심협력봉사단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마을 내 고령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세대 공감 돌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함평 손불 서로가’와 자발적 돌봄공동체 결성을 통한 통합적 성장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영광 한빛마을’, 배움터 구성으로 마을 주민 문화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신안 둔곡마을공동체’가 각각 장려상 수상의 영

‘나눔·헌신·보람’ 광주자원봉사박람회 성료

2만시간 봉사왕 8명 공로패 수여

홍보·전시·체험부스 등 43개 운영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역시민속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박람회는 ‘스무 해의 기억, 함께 열어가게 내일’을 주제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30여개 협력기관이 함께 했다.

박람회는 자원봉사 홍보·체험 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광주시민 자원봉사 의식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기념식,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2만 시간 이상 봉사에 헌신한 ‘자원봉사왕’ 8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해 자

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개막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들고 함께 외치는 ‘희망 메시지 퍼포먼스’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메시지에는 ‘성취감, 삶의 나침반, 나눔, 보람’ 등 자원봉사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단어들도 포함됐다.

행사장에는 ▲자원봉사 홍보물 전시 ▲재난안전 체험 교육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별 특색에 맞춘 체험관 ▲기업·공공기관·대학·자원봉사단체 참여 홍보관 등 총 43개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이 체험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왔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야말로 광주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자원봉사 도시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지역교통안전평가’ 최우수

광주시는 2일 “국도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우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실적 부문 3위, 효과 부문 2위, 개선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을 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과 교통문화지수 향상 등 핵심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미래 이끌 청년리더 62명 배출

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수료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 기대

전남도청년센터가 전남지역의 미래 변화를 이끌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청년리더 62명을 배출했다.

전남도청년센터는 지난 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7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이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기가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활동 영상 감상, 제7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62명의 청년에게 수료증 수여, 청년정책 토의 결과물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제7기 호남청년아카데미는 지난 8월30일 개강해 총 5회차 과정으로 진행됐다. 개강식 이후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유형과 예방’ ▲방송인 노홍철씨의 ‘호기심과 실행력만 있어도 설레는 세상’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남도국제미식박람회와 국제수목비엔날레 현장학습 ▲김지운 박사의 ‘글로벌 경제와 리더십을 통찰하다’ 주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청년비전센터 건립 등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 직접 수요층인 청년들이 깊이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7기 수료생 전원은 ‘전남 청년 서포터즈’로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행정과 정책수요자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호남청년아카데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재정부 후 2026년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